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13일 홀로어르신 20세대에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수강생들이 만든 물품을 전달했다.



대연3동 전 직원 및 대삼장학회 회원들은 지난 8월 10일 황령산 일원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대연4동 자원봉사캠프는 우천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을 제작해 밝은 두리지역아동센터와 성분도 비둘기 공부방에 전달했다.



대연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고지대 주택가 등에 실버벤치 6개를 설치해 주민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대연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93세대에 여름이불 28세트와 삼계탕 130팩을 전달했다.



용호1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관내 일원을 돌며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용호2동 관내 경로당 8개소를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도 안내·복지관련 궁금증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용호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2일과 13일에 각각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삼계탕과 김치, 여름이불 등을 전달했다.

우리 마을 쉼터, 우리 손으로 가꾸요

주민들 참여로 조성된 우암동 주민쉼터 오픈

썸뚱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13일, 우암양달행복센터 담벼락에 노란 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우암동마을건강센터 주민조직인 '주부의 자작' 회원들이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우암양달행복센터 내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벽화그리기 봉사를 자원한 것이다. 봉사자들은 같은 날 재능기부에 나선 사회적기업 (썸더옴(대표 이성인)과 함께 맞닿았던 쉼터 벽면을 생동감 있게 재탄생시켰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꼼꼼하게 색칠을 마친 아이들은 완성된 벽화를 뿌듯하게 바라봤다.

"우리가 가꾼 우리 마을 쉼터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흘 뒤 아이들이 직접 가꾼 우암양달행복센터 주민 쉼터는 '도란도란 쉼터'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우암동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강정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장순애)에서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 150여명을 초대해 쉼터 조성을 축하했다.

오랜 시간 방치 중인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시작된 쉼터 조성 사업은 앞서 지난 3일



에도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윤인원)과 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이영희)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2017년부터 우암동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이 한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재능기부의 형태로

도색작업을 지원했고 파라솔을 후원해 주민쉼터 조성에 힘을 실었다.

주민들과 봉사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의 자원 활동과 참여로 의미를 더한 도란도란 쉼터는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등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수 나눔이 쏘아올린 작은 소통

매월 셋째 주 월요일, 감만2동 월우경로당 인근에서는 구수한 멸치육수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한다. '감만2동국수나눔회(회장 이종기)'가 주민들을 위해 국수를 대접하는 신호다.

감만2동국수나눔회는 10여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봉사 단체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1년째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300여명의 주민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다.

고 있다.

국수 나눔이 알려지면서 익명의 후원자가 매월 요구르트 300개를 보내오고, 일손을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도 늘고 있다. 국수 나눔에 오신 어르신들은 마치 시골장터에 모인 듯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안부를 전하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국수 나눔을 넘어 감만2동의 소중한 소통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감만2동국수나눔회 이종기 회장의 후원과 회원들의 봉사로 1년째 이어져 오고



문현3동새마을금고 김성준 이사장 지역금융 활성화 공로 장관 표창

문현3동새마을금고 김성준 이사장이 지난 7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지역금융을 활성화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문현3동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만3천여명이 넘는 회원과 1천 30억원 이상의 자산이 넘는 건실한 서민 종합금융 새마을금고로 성장시켰다.

한편, 지난 7월 20일에 열린 문현3동새마을문고 보궐선거에서는 신임 부이사장에 서정호 씨가 선출됐다.



故 서용교 전 국회의원 1주년 추모식 열려

고 서용교 전 국회의원(제19대 남구을)의 1주년 추모식(사진)이 지난 7월17일 대연동 문수사에서 열렸다. 유족과 동문,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법회는 고인의 성품과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과 절친했던 동천약품 이찬우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현성 지역위원장장의 추모사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14일 혈액암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인은 동천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1996년 신한국당(자유한국당 전신) 사무처 공제 5기로 정치권과 인연을



(사진제공 : 부산일보)

맺었다. 2012년 남구을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안을 주도하는 등 남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아침 일찍 용호3동주민센터에 새마을부녀회분들이 양손가득 음식을 가지고 오신다. 미역국, 잡채, 생선에 떡과 과일까지. 한 사람이 먹을 것 치곤 양이 많은데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걸까?

오늘은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날이다. 음식과 꽃바구니도 도착했고, 지도를 보며 오늘 방문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날이 무더워 혹시나 음식이 상할까 마음이 급하다. 문을 두드리고 어르신집에 들어가니 탁자를 벌써 펴놓으셨다. 아침일찍부터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며칠 전, 8월,9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사전에 전화를 드렸다. 혹시 그 날 다른 일이 있는지, 시간은 괜찮으신지 여쭙기 위해서다.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다들 너무 좋아하신다. 즐거운 마음에 전화를 드리다 어르신 한분의 목소리가 떨리시더니 울먹이기 시작하신다. 여태껏 혼자 살면서 생일을 잊고 지냈는데,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흐느끼

시는걸 간신히 진정시키고 월요일날 뵙겠다며 감정을 달래드린다.

10시 반부터 들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건만 어르신들께서는 한, 두시간전부터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많은걸 혼자 어떻게 막아낼까. 괜히 아침부터 번거롭게 해 미안하다곤 하지만 입가에 스미는 미소만은 숨기지 못한다.



아침 일찍 맘을 뻗뻗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신 부녀회회원분들도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무더운 여름 날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순간이 아닐까.

어르신과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집방문을 위해 방문을 나간다. 문밖에까지 나오셔서 연신 고맙다며 우리가 멀어질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생신상도 즐겨주시겠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사람이 그리웠던게 아닐까

한여름날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힘쓰는 부녀회회원분들이 있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생신상이 외롭지않은 않은 것 같다. 양손 가득 챙겨갔던 음식보다 더 많은 걸 마음에 넣고 간다.

김형일 주무관(용호3동)

학교 소식

성천 참(CHAM) 갤러리 개관

성천초등학교(교장 강형렬)는 지난 7월 10일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성천 참(CHAM) 갤러리'를 개관했다.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갤러리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참(CHAM) 인정 가꾸기'와 연계한 인성 순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제3회 여름 성천버스킹'도 개최돼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호 토론논술 한마당 개최

용호중학교는 지난 7월 15일 '용호 토론논술 한마당'을 개최했다. 3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원전 개발 중단해야한다'는 주제로 논술한 뒤 4명이 한 팀을 이뤄 총 4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론을 펼쳤다. 입론과 심론, 반론 등의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자 마련한 용호 토론논술 대회는 오는 2학기에 2학년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실내 조정 체험 실시

문현여자중학교는 지난 7월 8일과 10일 양일간 교내 강당에서 '민주시민 성장학교'의 일환으로 전교생 대상 실내 조정 체험을 실시했다. 반별로 진행된 조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배려, 협동, 끈기, 기다림, 격려, 열정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초 역량을 다지면서 교우 관계를 증진했다.

북경지역 문화 탐방

부산세무고등학교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북경지역 문화체험 및 기업체 탐방을 실시했다. 중학교 석차 배분을 30% 미만인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부산세무고 장학 제도의 일환이다.

23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북경의 주요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21세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익혔다.